14-41 (통권 592호) 2014. 11. 11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우리나라 취학·진학 구조 변화하나?

-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목 차

■ 우리나라 취학·진학 구조 변화하나?

-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 ····· 2

3. 시사점 ····· 7

※ 부록: 한·독 대학교육비 부담과 대학경쟁력 비교 ····· 9

【HRI 경제 통계】 ····· 12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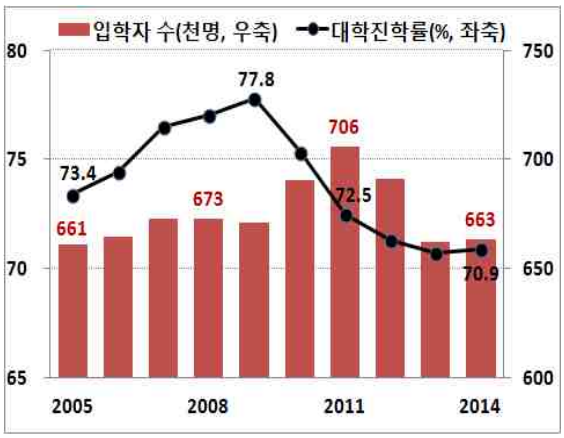
한국의 학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나 인적자본 경쟁력은 세계 23위에 불과해 고학력화가 인력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한국 인적자본 경쟁력이 낮은 원인을 한·독 청년층의 진학과 고용 구조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

(진학 측면) 첫째,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고 있다. 국내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포함)은 2009년 77.8%에서 2014년 70.9%로 낮아졌다. 또한 OECD의 5A(아카데미적 고등교육과정) 기준으로도 한국의 진학률은 2010년 71%에서 2012년 69%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독일은 같은 기간 9%p가 급등하였으나 2012년 현재 53%에 불과하다. **둘째, 대학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 감소가 대학진학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 기준으로 한국의 전문대학 진학자는 2010년 17만명에서 2014년 14.9만 명으로 2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진학자는 2014년 29.2만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OECD 5B(단기직업 고등교육과정) 기준으로 한국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독일은 상승하였다.

(고용 측면) 셋째, 한국은 직업훈련 비중도 여전히 낮다. 한국은 16~19세 인구 중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2.1%로 독일의 40.9%와 격차가 크다. **넷째, 대졸 이상 청년층의 고용도 저조하다.** 한국의 대졸이상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2년 75%로 독일의 89%보다 14%p 낮은데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2012년 56.2%에서 2014년 54.8%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니트족도 독일의 2배 수준으로 인력 활용도가 낮다.** OECD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고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비중이 한국은 18.5%로 독일의 9.9%의 약 2배가 넘는다. 특히, 대졸 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이 한국은 2013년 기준 15~24세가 9.9%, 25~29세 6.6%로 독일의 3.9%, 3.4%에 비해 높다.

<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과 대학 입학자 수 추이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감.

< 한국의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별 진학자 추이(천명) >

	총 진학자	일반 대학	전문 대학	기타
2005	418	252	143	23
2007	437	263	154	20
2009	448	273	157	19
2010	477	289	170	18
2011	470	279	174	17
2012	454	288	160	7
2013	446	289	151	6
2014	449	292	150	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 시사점

최근 국내 대학진학률은 하락했지만 일반대학 진학자는 꾸준히 증가해 **'학력·입시위주'의 진학 환경은 지속**되다. 이에 국내 취진학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고교 직업교육부터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대학들도 직업훈련과정과 해외취업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은 특성화하고 일반대학은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1. 개 요

○ 한국의 고학력화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나 인력의 경쟁력은 세계 23위 수준에 불과함

- 한국 인력의 대졸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0%p 높은데, 25~3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임

  · 한국은 25~6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이 2012년 기준 42%로 OECD 국가 평균인 32%에 비해 10%p 높음

  · 특히, 25~34세 인구의 대졸자 비중은 66%로 OECD 국가들 중 최고이며 독일의 29%에 비해서는 2배가 넘음

- 한국은 고학력화에도 인적자본 경쟁력[1]은 세계 23위로 낮게 평가되어 높은 고학력화가 인력 경쟁력 제고로 꼭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

  · WEF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본 경쟁력은 세계 122개국 중 23위로 한국보다 대졸자 비중이 낮은 독일 6위, 일본 15위 등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음

○ 이에 한국의 인적자본 경쟁력이 낮은 원인을 한국과 독일 청년층의 취학 및 진학 구조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연령별 대졸자 인구 비중(%, 2012) >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4~65세
독일	28	29	30	28	26
일본	47	59	52	46	32
미국	43	44	46	41	42
한국	42	66	52	29	14
중국	4	-	-	-	-
OECD 평균	32	39	35	29	24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국가별 인적자본 경쟁력 순위 비교>

자료 : WEF, 'The Human Capital Report 2013'.
주 : 인적자본 경쟁력은 122개국 중 순위임.

1) WEF(World Economic Forum)은 2013년부터 세계 122개국의 인적자본을 교육, 건강, 고용, 생활환경 4가지 구성요소로 지수화하여 평가.

2.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

1) 진학 측면

○ (한국 대학진학률 하락)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독일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국내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크게 하락했고 대학 입학자 수도 소폭 감소

·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등 모두 포함)은 2009년 77.8%(합격 이후 등록자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70.9%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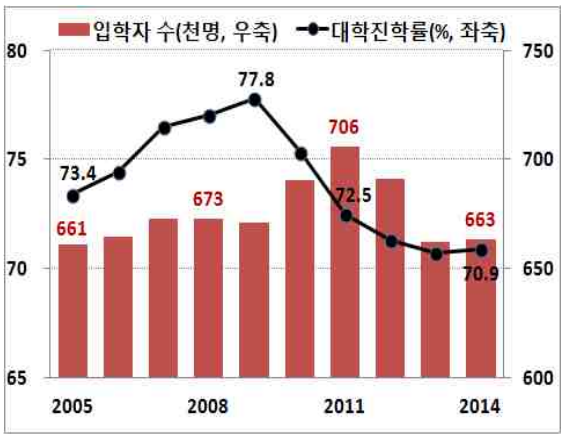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재수생 등을 모두 포함)도 2011년 70.6만 명에서 2014년 66.3만 명으로 줄어듦

- OECD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하락하고 독일은 빠르게 상승

· OECD 5A(아카데미적 고등교육과정)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2000년 45%에서 2010년 71%로 급등했지만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2년 69%로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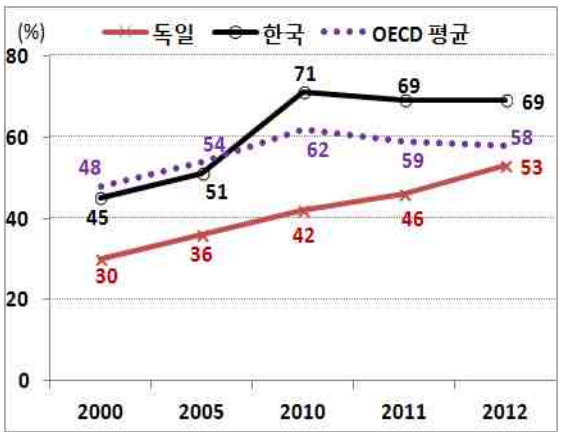
· 반면, 전통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낮았던 독일은 최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2년 53%를 기록

< 국내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과 대학입학자 수 추이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감.
주 1) 대학진학률=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고등학교 졸업자)*100.
2) 입학자 수는 재수생 등을 모두 포함.

< OECD 기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



자료 : OECD.
주 : 4년제 대학 중심의 Tertiary 5A 기준임.

○ (대학별로 보면 한국은 전문대학 진학자가 큰 폭으로 감소) 한국은 전문대학 진학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독일은 증가

- 한국의 대학진학률 하락은 전문대학 등의 진학자 감소[2]에 기인하며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자는 계속 증가[3]

·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2010년 47만명에서 2014년 44.8만명으로 약 2.8만명 감소

· 대학별로 보면, 일반대학 진학자는 2014년 29.2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2010년 17.0만명에서 2014년 14.9만명으로 2만명 이상 감소

· 이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별 진학자 비중도 일반대학은 2010년 60.5%에서 2014년 65.1%로 상승했지만 전문대학은 동기간 35.7%에서 33.4%로 감소

- OECD 기준으로도 한국의 전문대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독일은 반대로 상승

· OECD 5B(단기직업 고등교육과정) 기준 한국의 진학률은 2000년 51%에서 2012년 36%로 낮아진 반면, 독일은 동기간 15%에서 22%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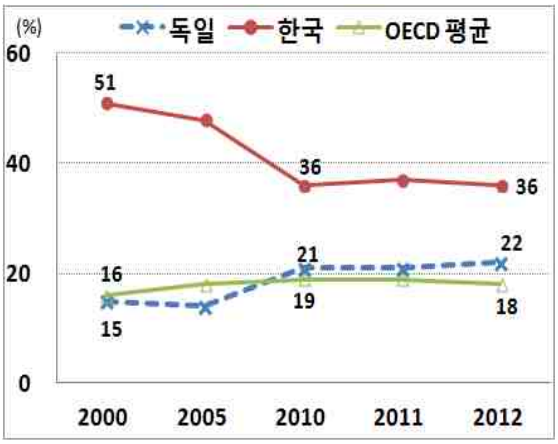
·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한국의 전문대학 학생수도 2000년 91.3만명에서 2012년 76.9만명으로 감소하였음

< 한국의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별 진학자 추이(천명) >

	총 진학자	일반 대학	전문 대학	기타
2005	418	252	143	23
2006	423	256	146	20
2007	437	263	154	20
2008	448	268	159	22
2009	448	273	157	19
2010	477	289	170	18
2011	470	279	174	17
2012	454	288	160	7
2013	446	289	151	6
2014	449	292	150	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기타는 교육·산업대학, 방송통신대, 기술대학, 사이버 대학 등을 포함.

< 전문대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주 :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기관 중심의 Tertiary 5B 기준임.

2) p.11 <참고 2.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별 진학자 추이> 참조.
3) 전체 재학생 수도 전문대학은 2005년 85만명에서 2014년 74만명으로 11만명 줄었지만 일반대학은 동기간 186만명에서 213만명으로 계속 증가

2) 고용 측면

○ (한국은 직업훈련 비중이 여전히 낮음) 한국은 고등학생들의 직업훈련 비중이 낮고 전공과 직업 간 연관성도 낮다고 인식

- 한국 고등학생의 직업훈련과정 비율은 독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한국의 16~19세 인구 중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2.1%이나 독일은 40.9%가 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받고 있음

· 16~19세 학생 중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비중도 한국은 17.6%로 독일의 44.4%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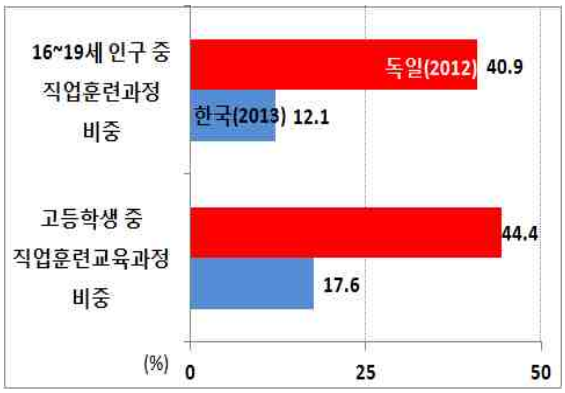
· 한편, 독일은 직업훈련생의 약 50%이상이 학교와 현장 실습이 결합된 Dual System(이중체계)을 활용하고 50만개 기업 이상이 참여

- 한국은 청년 인구 중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중이 낮고 훈련기관도 60% 이상이 사설학원이며 전공과 직업과의 연관성도 낮았음

· 국내 청년 인구 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014년 기준 약 16.1%로 낮고 직업훈련 경험자의 60% 이상이 사설학원에서 교육받음

· 한편, 취업·취업경험이 있는 자 중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약 38%에 불과함. 학력별로 보면, 특성화고 졸업자가 21.5%, 전문대졸 36.0% 대졸자도 44.0%로 낮았음[4)]

< 중등교육(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 참여 비중 >



자료 : 각 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1) 한국은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합임.
2) 독일 고등학생은 16~19세 중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임.

< 한국 청년층의 직업경험의 유무와 직업훈련기관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청년층 고용 부가조사.
주 : 매년 5월 기준이며, 15~29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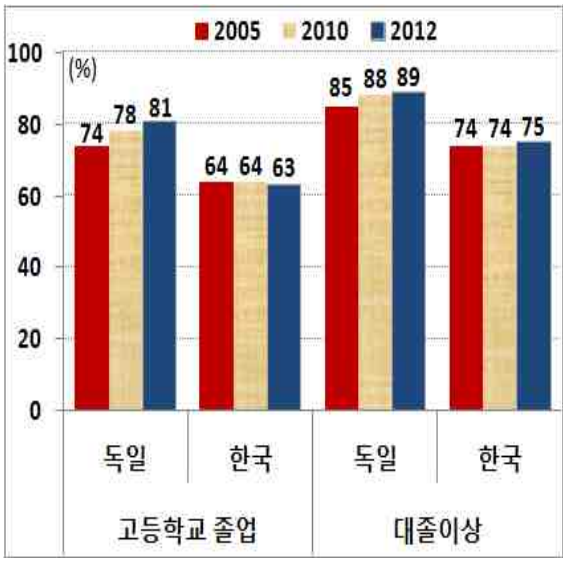
4)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 (한국은 대졸이상 청년층의 고용이 저조) 한국 대졸이상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이 독일보다 크게 낮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하락하고 있음

- 한국은 대졸이상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이 독일보다 10%p 이상 낮음
  ·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대졸이상이 2012년 75%로 독일의 89%와 14%p 격차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63%로 독일보다 18%p 낮음
  · 특히, 한국은 25~34세 대졸이상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25~65세의 77%, 71%보다 낮지만 독일은 24~34세의 학력별 고용률이 25~64세의 대졸이상 88%, 고등학교 졸업자 78%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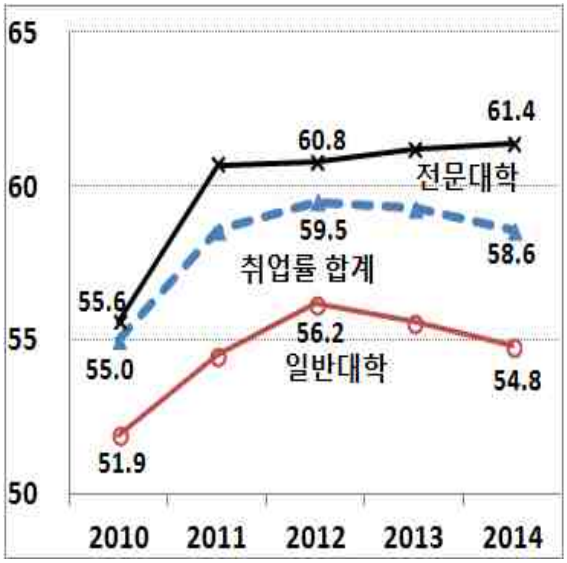
-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이마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은 2010년 55%에서 2012년 59.5%로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보이며 2014년 58.6%로 낮아짐
  · 대학별로는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56.2%에서 2014년 54.8%로 낮아진 반면, 전문대학은 동기간 60.8%에서 61.4%로 소폭 상승함

< 25~34세 인구의 학력별 고용률 추이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국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Eurostat.
주 :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임.

○ (한국은 니트족도 독일의 2배 수준으로 인력 활용도가 낮음) 한국은 니트(NEET)족[5] 비중과 대졸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이 독일의 2배에 달함

- 한국은 니트족 비중이 독일의 2배 수준

·OECD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고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NEET)족 비중이 한국은 18.5%로 독일 9.9%의 약 2배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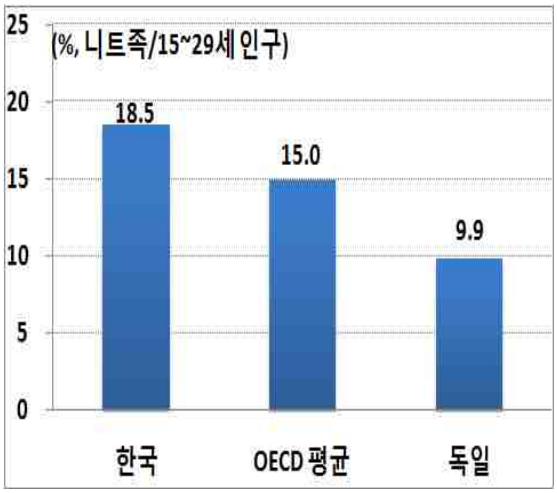
·특히, 독일은 니트족 비중이 스페인 25.8%, 이탈리아 24.6% 등 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과 격차가 컸고 미국 15.2%, 영국 16.3% 보다도 크게 낮았음

- 한국은 대졸이상 청년층의 실업률도 독일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한국은 대졸 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이 2013년 기준 15~24세는 9.9%, 25~29세는 6.6%로 독일의 3.9%, 3.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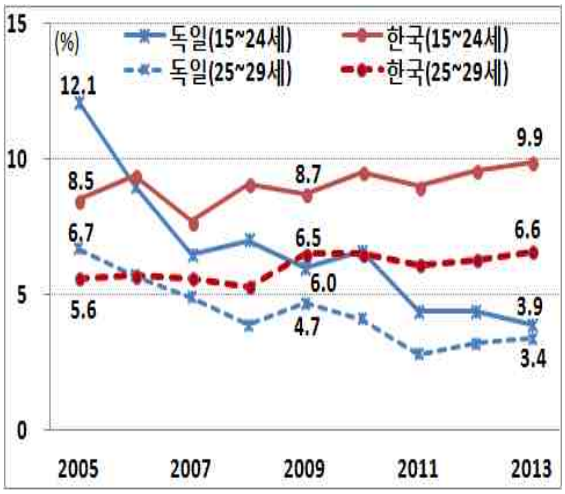
·특히,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한국은 2005년 218.1만명에서 2013년 307.8만명으로 89.7만명(41.1%) 증가했지만 독일은 동기간 138.5만명에서 135.7만명으로 2.8만명 감소함

< 니트(NEET)족 비중(2012년)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연령별 대졸 이상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Eurostat.
주 : 한국은 15~29세, 독일 15~24세로 청년층 기준이 달라 연령별로 실업률을 제시함.

5) 니트족은 15~29세 인구 중 고용되지도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비중임.

3. 시사점

○ 최근 국내 대학진학률의 하락은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 강화로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자가 줄었기 때문이며 일반대학 진학자는 오히려 늘어나 '학력·입시 위주'의 진학 환경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고학력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대학교육비 부담 등도 높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 훈련을 선택하거나 니트족이 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됨

○ 국내 일반대학 진학자의 꾸준한 상승은 고학력 청년 실업 확대, 가계의 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교육단계별 직업교육 체계화, 고학력 청년고용 활성화, 대학별 특성화 강화 노력이 필요함

첫째,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시작으로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 우선,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수한 졸업자들이 이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

- 기업 내에서도 사내 대학[6] 확산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

둘째,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반대학들도 직업훈련과정 과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취업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

6) 최근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이상 대학과정),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이상 전문대학과정)에서 사내대학 과정을 신설함. 2013년 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 대학 졸업자의 전공 계열별로 취업률 차이가 큰 만큼, 4년제 대학들도 다양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이 풍부한 만큼 해외 취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인턴쉽 프로그램 확대하고 관련 정보와 컨설팅 제공도 체계화되어야 함

셋째, 전문대학은 특성화하고 일반 대학은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대졸이상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최저 수준이나 일반대학 진학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학들도 산·학 협력 강화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문대학들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취업자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특성화해야 함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첨부 1. 한·독 대학교육비 부담과 대학경쟁력 비교>

○ 한국은 대학이상 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이 커 교육 수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작용

-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아 대학등록금 부담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한국은 4년제 대학의 약 75%가 사립으로 OECD 국가 대학의 72%가 공립, 14%만이 사립인 것과는 대조됨. 특히, 한국의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2011년 기준 9,383달러(PPP 기준)로 OECD 국가 중 5위로 대학교육비 부담이 큼

· 반면, 독일은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이며 고등교육기관도 약 87%가 공립, 13%는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기관임

- 특히, 한국은 대학이상 과정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큼

· 한국은 교육비에 대한 공공부담이 2011년 기준 GDP 대비 4.9%로 독일 4.4%와 비슷하나 민간 부담은 2.8%로 독일의 0.7%의 약 4배 수준임. 이는 대학이상 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GDP의 1.9%로 높기 때문임

· 특히, 가구주의 약 73%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고, 15세 이상 인구 중 교육수준 미충족의 원인 중 '경제적 형편'이 2010년 50.4%에서 2012년 54.0%으로 상승[7]하였음

< 사립대학 등록금과 사립대학 비중 비교(2011년) >

순위	국가	등록금 (PPP USD$)	사립대학 비중(%)
1	미국	17,163	30
2	오스트리아	~11,735 (최대)	16
3	슬로베니아	11,040	6
4	호주	10,110	5
5	**한국**	**9,383**	**75**
6	일본	8,039	75
	:	:	
	독일	**-**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주 1) 4년제 이상의 Tertiary A 기준임.
2) 오스트리아는 정부지원 사립대학임.

< 교육단계-재원별 교육비 지출 규모(%/GDP, 2011년) >

			독일	한국	OECD
전 체			5.1	7.6	6.1
	공공		4.4	4.9	5.3
	민간		0.7	2.8	0.9
교육단계별	초·중·고		3.1	4.1	3.6
		공공	2.8	3.4	0.3
		민간	0.4	0.8	3.9
	대 학이상		1.3	2.6	1.6
		공공	1.1	0.7	0.5
		민간	0.2	1.9	1.1

자료 : OECD.

7)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결과.

○ 한국 대학교육 시장은 세계화 수준이 낮고 경쟁력도 낮게 평가받고 있음

-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의 1% 초반으로 세계화 수준은 낮음

· 한국은 대학 등록자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2000년 0.2%에서 2012년 1.3%로 높아졌지만 미국 등에 비해서는 세계화 수준이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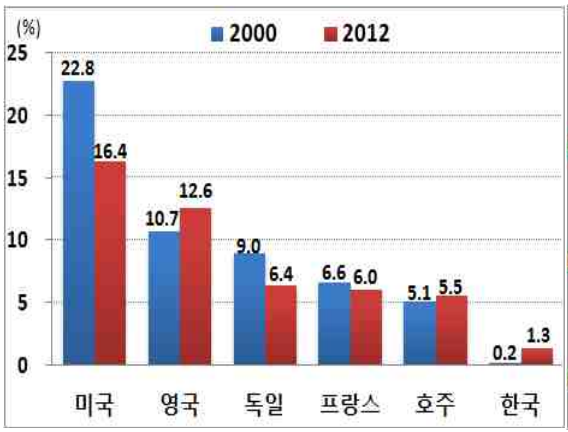
· 국가별로 미국이 대학 등록자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2012년 기준 16.4%, 가장 높은데 독일의 경우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6.4%로 가장 높음

- 한국은 대학경쟁력도 매우 낮아 교육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며 세계 300위권 대학도 8개에 불과함

· IMD의 교육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국가경쟁력보다 교육 경쟁력이 낮게 평가받고 있음. 특히, 대학 경쟁력은 2014년 조사대상국 60개국 중 53위로 저조한 반면 독일은 6위로 높은 수준임

·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300위 대학 가운데 독일은 총 22개가 포함됐지만 한국은 8개 대학에 불과

< 대학 등록자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주 : Tertiary A 기준임.

< IMD의 대학경쟁력 순위 >

자료 : IMD.
주 : 대학 교육이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지에 관한 설문조사로 60개국 중 순위임.

<첨부 2.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추이>

연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미상	입대자	무직
2005	569,272	417,835	52,852	21,613	734	26,565
2006	568,055	422,693	47,118	16,962	699	37,028
2007	571,357	437,180	35,680	14,239	695	47,778
2008	581,921	448,321	33,470	5,546	1,175	54,221
2009	576,298	448,224	28,358	6,558	1,365	67,774
2010	633,539	477,384	34,182	24,670	1,405	73,000
2011	648,468	469,961	41,057	43,953	1,940	91,557
2012	636,724	453,899	53,,060	28,139	1,573	100,053
2013	631,197	446,474	55,443	28,729	1,389	99,162
2014	632,983	448,817	61,268	31,028	1,203	90,667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연간(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0	3.9	3.5	3.2	3.6	3.6
	민간소비(%)		2.0	2.5	1.5	1.6	2.3	2.8
	건설투자(%)		6.7	4.3	0.2	3.0	1.9	3.0
	설비투자(%)		-1.5	7.3	7.7	3.9	5.7	5.1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799	151	241	227	800	68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441	52	149	91	433	426
		수출(억 $)	5,596	1,376	1,457	1,421	5,770	6,023
		증감률(%)	(2.1)	(1.7)	(3.2)	(3.9)	(3.1)	(4.4)
		수입(억 $)	5,156	1,323	1,308	1,331	5,336	5,597
		증감률(%)	(-0.8)	(2.0)	(3.2)	(5.6)	(3.5)	(4.9)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1.1	1.6	1.4	1.7	1.9
실업률(%)			3.1	4.0	3.7	3.3	3.6	3.4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